

김동리 정치 소재 소설 인물의 초월성 연구

— ‘성 바보’ 모티프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전 계 성*

요약

김동리의 「해방」(1949.9~1950.2)은 정치적 현실을 추수하여 노골적으로 우익 편향성을 드러낸 작품이다. 그런데 「윤희설」(1946.6)과 「형제」(1949.3)에서 드러나는 기독교 인유의 흔적과 「해방」의 이장우에게 덧씌워지는 십자가 희생의 이미지를 함께 고려하고, 김동리의 제3기 휴머니즘론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기까지의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볼 경우 「해방」은 새로운 인간관의 한 모형인 인신(人神)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신은 「술」(1936.8)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악령』의 키릴로프를 인용하며 간접적으로 제시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녀도」의 모화에 해당하며 김동리는 이를 신을 내포한 인간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산화」와 「비위」 또한 신을 내포한 인간을 묘사한 작품이다. 하지만 김동리가 창조한 초기 소설의 인물들은 전근대적 분위기와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제3기 휴머니즘론의 현실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김동리는 해방기 정치 소재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상정 가능한 인신의 유형을 제시하게 된다.

「윤희설」에서는 순결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결합된 종우의 성 바보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형제」에서는 죄악을 박해하는 자에서 죄인 인사의 자녀를 용인하고 도리어 우익에 핍박당하는 자로 전환되는 비합리적 장면을 통해 인봉의 성 바보적 측면이 제시된다. 「해방」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견줄 수 있는 이장우의 희생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신의 성격이 더욱 심화된다. 이는 「무녀도」나 「사반의 십자가」에서 기독교 대항성을 토대로 김동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여신적(與神的) 인간의 가치를 부상시킨 전략과도 유사하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주제어: 김동리, 해방기, 제3기 휴머니즘, 성 바보, 기독교 인유, 인신(人神)

목차

1. 문제제기
2. 정치적 선택 너머의 제3기 휴머니즘을 보는 방법: 성 바보 모티프의 변용
3. 성 바울 인유를 통한 유로지비의 탄생: 「윤희설」·「형제」
4. 십자가 인유를 통한 현실적 인신(人神)의 창출: 「해방」
5. 마무리

1. 문제제기

김동리의 정치 소재 소설들은 우익 편향적 정치성에 함몰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문학의 정치성은 순수성의 대척점에 있는 특징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순수문학을 추구해왔던 김동리는 자신의 문학적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현실을 추수하다가 결국 자기모순에 빠진 작가라는 부정적 인상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김동리 소설의 정치성을 평가하려는 견해가 존재한다. “순수문학에 함유된 정치적 입장이, 해방공간에서 예술의 껍질을 뚫고 나왔다고도 할 수 있다”¹⁾는 박은태의 논의는 문학의 순수성과 정치성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 즉 순수성이 정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학의 정치성이 순수성의 부분이라면, 맹목적 현실 추수의 결과로 보이는 우익 편향적 작품은 순수문학의 변질이 아니라 본질적 순수문학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김동리의 문학적 행보를 하나의 일관된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홍주영은

1) 박은태, 「김동리의 『해방』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277면.

김동리 소설의 정치적 특성을 “모성적 기호계에서 부성적 상징계를 지향하는 ‘아브젝시옹’적인 운동으로 이해”²⁾함으로써 김동리 문학의 일관적인 흐름을 조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우익 편향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해방」은 좌우익의 극심한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김동리는 다수의 우파 언론 선전부장 직을 거쳤을 정도로 노골적인 우익 옹호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김동리의 작품들을 순수성과 정치성으로 이분화 하여 상호모순적인 관계에서 해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강한 정치성을 띠는 작품에서 순수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데 있다. 순수성과 정치성이라는 김동리 소설의 내적 모순은 작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김동리가 ‘신과 인간과 민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소설 창작의 기본적 요소로 삼았다는 사실’³⁾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김동리가 우파 선전을 위해 문학을 이용했다는 학계의 주된 평가를 수용하면서 ‘신성’이라는 개념을 중시한 김동리의 삶의 구경 탐구로서의 소설이, 신성이 지배하는 전근대 영역을 벗어나는 해방 후 정치적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변주되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동리의 해방기 정치 소재 소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해방」을 중심으로 작가의 노골적인 현실 추수와 미흡한 작품성을 논의하고 있다. 박영순은 김동리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제한되지 않은 존재, 즉 본래의 인간성을 보존하고 있는 존재를 표현한 결과, 결국 이념과 행동이 괴리를 보이는 정치적 인물의 탄생을 초래”⁴⁾했다고 지적하면서 「해방」의

2) 홍주영, 「김동리 문학 연구 : 순수문학의 정치성과 모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01면.

3) “나의 문학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들면, 신과 인간과 민족이다. 나의 주요 작품은 대부분, 그 주제(thema)에 있어 인간과 신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 상황적 조건에 있어서는 대개 민족이 관여하고 있다” 김동리, 「신과 인간과 민족」,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29:수필·발과 사랑과 그리고 영원』, 계간문예, 2013, 105면.

정치적 인물 형상화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또한 이찬은 김동리가 제시한 ‘순수문학’에 대해 “순수문학이라는 문학적 표어가 사실상 ‘해방기’의 정치적 상황이나 그 사회적 역학 관계에서 배태된 ‘이데올로기적 언어’에 불과하다”⁵⁾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혜진의 지적과 같이 「해방」의 정치성이 단지 해방정국의 소설이 진입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 현실이라면, 김동리의 「해방」에 관한 핵심적 의미는 맹목적 정치성이 아니라 인간성 옹호나 제3세계관, 그리고 나아가 제3기 휴머니즘의 설계 등과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실의 상황은 결국 김동리에게 이들 좌우익의 이념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결국 그는 우익 측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선택하게 된다. 〈해방〉에서 이러한 선택의 불가피성을 ‘이장우’의 말을 통해 드러낸다”⁶⁾는 박종홍의 지적도 그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김동리의 정치 소재 소설에서 어떤 부류의 삶의 구경 탐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이다. 해방기에 발표된 김동리의 작품들 중 정치적 현실을 전면화한 것은 「윤희설」(1946), 「상철이」(1947), 「형제」(1949.3), 「급류」(1949-1950), 「해방」(1949-1950)이다. 「한내마을의 전설」(1950)에서도 독립운동가(사회주의자) 가문이 처한 해방 정국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혜진이나 박종홍의 지적대로 해방기 문학이 탈정치적일 수 없고, 당시의 정치적 현실인 좌우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이후가 된다. 문학을 통한 우과 선전이 김동리의 문학적 행보의 성격을 판가름하는 일차적인 요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김동리의 우익 선택과 그 이후에 추구하는

4) 박영순, 「김동리 〈해방(解放)〉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6, 181면.

5) 이찬, 「해방기 김동리 문학 연구: 담론의 지향성과 정치성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294면.

6) 박종홍, 「김동리 소설 연구: 해방기 작품을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1995.12, 292면.

문학사상의 일견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은 김동리가 정치적 선택 너머로 초기 소설의 인물과는 다른 유형의 초월적 인물을 설정한 이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윤희설」, 「형제」, 「해방」의 우과 선전적 특징을 지적하는 선행 연구의 성과 위에서, 우과 인물의 초월적 선택 장면을 반복해서 삽입하는 김동리의 또 다른 의도를 밝히고자 함이다. 이는 김동리가 평생을 두고 추구한 삶의 구경 탐구가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범주 내에 위치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김동리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밝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문학을 통해 인간 존재의 신성을 추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해방기의 여러 소설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초월적 면모는 정치적 현실 추수 목적의 우익 옹호 장치 이상의 의미, 즉 신적 인간 모형을 구축하는 제3기 휴머니즘 설계도의 현실판 변주 가능성으로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치적 선택 너머의 제3기 휴머니즘을 보는 방법: 성 바보 모티프의 변용

김동리의 「해방」을 바라보는 박은태와 김주현의 관점은 김동리 문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방」이라는 작품의 위상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박은태는 연속성 속에서 「해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김주현은 「해방」이 현실 추수 의식 때문에 문학 사상이 단절된 증거임을 강조한다. 물론 이해진은 「해방」을 정치적 현실과 개별 주체의 삶을 함께 조명했다고 본 박영순의 관점과 유사한 입장에서 「해방」에 나타난 해방기 청년들의 주장에 담긴 논리에 집중하였지만, 「해방」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박헌호는 통속성의 가벼움을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삼았던 김동리에게서 ‘사회적 지성’의 빈곤을 포착해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헌호의 통속성에 대한 규정은 ‘가벼움’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흥미롭고 충격적이며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인 소재를 두고 통속성의 요건이라면 「해방」은 충분히 통속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박헌호의 지적과 같이 김동리는 당대의 정치적 현실을 다루면서 이념의 문제를 통속의 문제와 결부시켰다. 이 문제는 자칫 이념의 문제가 통속성으로 인해 가벼워지는 것처럼 보여서 김동리는 중요한 정치적 현실을 한낱 남녀의 정사 문제로 격하시킨 빈곤한 ‘사회적 지성’을 지닌 작가가 되고 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김동리가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삶의 모순적 상황들과 한계에 부딪힌 인간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속성 이면에 있는 구경 탐구적 요소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김동리가 통속적인 이야기를 쓰면서 정치 현실을 곁들인 게 아니라, 지나치게 적나라한 방식으로 도식화된 해방기의 현실을 소설 속에 구성하고 그러한 도식적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를 논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김동리의 말은 이념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무리 따져보아도 현실에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쪽은 (도식적으로)정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문제를 ‘가벼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실상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근대 이후 인간의 위치와 형상을 노정하려 했던 제3기 휴머니즘과 김동리 소설을 하등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해방」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미소체제로 양분화되는 바람에 제3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⁷⁾는 김주현의 언급에 따르면 제3세계에 대한 김동리의 꿈은 현실 추수로 인해 좌절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김동리의 논리 체계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로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결함과 유물사관적 세계관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제3세계 논리인데, 여기서 자본주의의

7) 이혜진, 앞의 글, 84면.

8)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2013, 105면.

결합이란 근대 이성의 한계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세계대전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를 중시하지만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는 한계를 보였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김동리가 유물사관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이 애초에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획일성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3세계에 대한 지론의 최종 목표는 제3기 휴머니즘이다.

제3기 휴머니즘의 핵심은 유물사관의 획일주의를 지양하면서 신과 인간 간의 오랜 관계를 재편하는 것이다. 김동리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신과 계율의 억제와 예속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인간성의 옹호라고 보는 것이 무리고 억지인가”⁹⁾라는 입장에서 제3기 휴머니즘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인간을 예속시킨 외재적 신성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유물사관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내적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외부적 신성으로부터 초월성을 공급받았던 인간이 신을 멀리했을 때, 즉 이성만을 추구하는 근대 합리주의로 기울어졌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내부적 신성이 그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성의 차원을 버리고 이성을 중심으로 재편된 근대 세계에서 「무녀도」의 모화와 같은 ‘신을 내포한 인간’은 제3기 휴머니즘을 나타내는 원류적 인물이 된다. 그런데 해방기에 있어서 해답이 될 인간관은 전근대적 초월성으로 설명되어서는 설득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당대의 가장 큰 문제였던 좌우익의 갈등을 해결하는 인간형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는 것이다.

그가 창조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인(異人)적인 요소를 품고 있다. 해방 이전에 신성을 추구한 주요 작품 「바위」(1936), 「무녀도」(1936), 「산제」(1936)에서는 그 이인다움을 미르치아 엘리아테의 히어로파니, 에피파니 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⁰⁾ 히어로파니는 신의 현현을 의미하고 에

9) 김동리, 「본격문학과 제3세계관의 전망」,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32:평론』, 계간 문예, 2013, 110면.

10) 「을화」(1978)에는 신병으로서의 질병이 공포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부분을 엘리아테의 크라토파니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또한 「만자동경」(1979)에는 꿈에 신적 존재가 나타나 지령

피파니는 성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사물이나 장소에 깃든 성스러움을 의미한다. 위의 세 작품은 기적과 같은 초월성을 드러내고 있기에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작품을 썼던 김동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당대의 배경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초월성을 묘사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 바보 개념은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발견 가능한 죄성 많은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휴머니즘이 갖는 변별성이란 완전히 구별되고 성스러운 인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인물의 초월적 선택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극히 육체적이어서 한계가 뚜렷한 낮은 단계의 인간과,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바보스런 정신적 인간이 하나의 성격으로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동리는 「목공 요셉」, 「사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해서 드러내려고 했으며 그와는 경쟁할 수 있는 인물로 사반을 내세웠다. 새로운 휴머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원 재료는 예수의 반인반신적 특성이었고 신성 쪽으로 더 기울어진 예수와는 반대되는 대항마를 새로운 휴머니즘의 기수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955년의 「사반의 십자가」가 탄생하기 전, 김동리가 냉혹한 정치적 현실 세계에서 신성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형을 고안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하나의 초기 작품 「술」(1936)에는 인신론(人神論)에 대한 김동리의 구상이 잘 드러나는데 이는 새로운 휴머니즘에 대한 설계가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 김동리는 전근대적 배경에서의 초현실성

을 내리는데 신이 현몽했다는 점에서 테오파니로 설명될 여지는 있지만, 무당 귀신의 형태로 나타난 여신을 거룩하고 성스러운 신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11) 「술」의 인신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전계성, 「典神의 인간의 탈근대성과 그 기원 - 김동리 초기소설(1935~36)을 중심으로 -」, 『영남학』 84, 영남문화연구원, 2023.3.

을 바탕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천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를 일의적 가치로 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초현실적 요소를 제거한 채로 현실 무대로 옮겨놓는 것은 김동리에게 큰 고민거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성에 관한 전근대적 의식을 드러내는 「바위」(1936), 「무녀도」(1936), 「산제」(1936)에서는 현실과 영적 세계를 이원화한 상태에서 인간의 초월성을 다뤘지만 새로운 휴머니즘의 현실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의 순수주의 또한 허상이 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김동리는 해방기 작품들에서 전근대의 신비적 초월성보다는 현실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수준의 초월적 면모를 지닌 인물을 형상화하게 된다.

해방기라는 특수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김동리는 자신의 문학사상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우익을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이는 김동리가 자신의 사상을 더욱 확장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문학적 차원에서는 현실 세계의 새로운 전망을 전혀 제시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부정적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리는 하나의 돌과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도 존속 가능한 이인(異人)이다. 그의 이인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은 백형 김범부이다.

내가 이러한 반신적(半神的) 인간이 지상 어디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계기는 이 밖에도 또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내 백씨(범부 선생)였다. 나는 백씨가 지상에 있었던 두드러진 천재의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¹²⁾

김동리가 백씨를 이인으로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반신적(半神

12) 김동리, 「백씨 범부 선생 이야기」,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26: 수필로 엮은 자서전』, 계간문예, 2013, 418면.

的) 인간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김동리의 실제 삶에서 백형에게 반신성을 부여한 것은 그의 천재성에 기인하는데, 이를 소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고전소설의 영웅적 면모로 귀결되어 인물 창조 방식의 퇴보를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김동리는 해방기 소설 작품의 주인공들에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자 한계를 설정하는데 그것이 성적 욕망이다. 이 요소는 이야기가 전개되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에 도달하였을 때 초월적 이인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보통의 인간으로서 번뇌에 고통당하면서도 어떤 조건 하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 범위를 넘어서는 결정을 보여주는 이중적 면모가 현실 세계의 신성 내포 인간을 통해 드러나면서 소설은 개연성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가 성 바보, 즉 유로지비이다.

성 바보의 행위는 수세기에 걸쳐 러시아에서 사회적인 양심의 일부를 형성해 왔으며 수많은 문학작품들의 창작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페도또프에 의하면, 성 바보는 러시아의 정신적인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것은 러시아의 심미안적 자기표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며 러시아 종교의 세계관에서 볼 때 중요하다. 또한 러시아 사가들과 사회비평가들(글류체프스끼, 페도또프, 골루빈스끼, 도스토예프스끼, 플로그리보프)을 매혹시켜 온 오랜 사회-문학사의 결과로서 발전해 왔다.¹³⁾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성 바보와 도스토예프스끼, 그리고 김동리 문학사상의 연관성이다. 김동리는 「술」에서 도스토예프스끼의 『악령』의

13) 문석우,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뿔바보’에 대한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6, 한국러시아학회, 2004.6, 88면.

인물들을 소환하여 인신론을 암시한다. 인신(人神)은 외부에 존재하는 신적 존재의 도움 없이 인간이 스스로 초월성을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한다. 김동리의 「술」과 도스토예프스키 세계관의 관련성, 그리고 기독교를 활용 또는 기독교와 대치하여 새로운 인간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잘 맞아떨어진다. 물론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성 바보와 김동리 소설의 성 바보는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김동리는 기독교에 귀의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를 활용하여 많은 소설을 창작했던 것처럼 성 바보의 개념 또한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변용시킬 수 있는 작가이다.

러시아 문학에서의 성 바보 출현은 기독교가 러시아에 유입될 당시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지만, 기실 성 바보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있다고 판단된다. 「사반의 십자가」까지 창작하며 기독교 교리와 씨름했다는 것은 도스토예프스키가 관심 있게 보았던 성 바보의 개념조차도 김동리는 그 원류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해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김채희에 따르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를 ‘유로지비(Юродивый, holy fool)’라고 칭했”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언급되었으며”, 『백치』에서도 주인공 미치킨 공작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¹⁴⁾ 도스토예프스키가 내세운 성 바보 인물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백치라고 부를 만큼 극도로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모든 악감정에 대한 무지를 지니고 있”¹⁵⁾다는 김채희의 분석을 참고하면서, 유로지비라는 잣대로 해방기의 정치적 현실을 다룬 김동리 소설의 주인공들을 바라보면 또 다른 형태의 성 바보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성육신한 하느님으로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기독교 외적인 의미에서는 신적 존재의 이해할 수 없는 바보스러움으로 읽혔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는 라스콜

14) 김채희, 「구로사와 아키라의 휴머니즘에 관한 재고찰: 전제된 질문(données d'une question)과 바보성자(Юродивый) 개념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94, 한국영화학회, 2022.12, 220면.

15) 위의 글, 221면.

리니코프가 소냐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굴절되었다. 그러나 김동리 소설에서 성 바보는 순수성과 자유를 동시에 갈망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성적 욕망을 지닌 지극히 보편적인 인물이 타인의 죄를 대신해 희생을 감수하는 이중적 면모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 바보 이미지의 굴절과 관련하여 루돌프 오토의 ‘누멘’ 개념도 김동리가 내세우는 현실 내에서 상정 가능한 초월적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토는 ‘신성을 인간이 인식 가능한 범주의 합리성으로 전부 표현할 수는 없다¹⁶⁾고 강조하고 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오해는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비합리성을 지니고 있고 이 때 신과 인간의 관계 망에서는 누멘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망을 해방기 김동리 소설의 몇몇 인물에 대입해본다면 조금은 다른 구도를 발견할 수 있다.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초월적 능력이나 영적 존재와의 소통 등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이 아니라 사고 및 행위의 비합리성을 통해 특별한 종류의 인간을 신의 자리에 위치시키면서 제3의 인간형과 보통의 인간형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술」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의 인물 키릴 로프를 통해 인신론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던 김동리를 고려하면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 인간에게 신격이 부여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이때의 신격은 「무녀도」, 「바위」, 「산제」에서 다루었던 신비적 초월성이 아니라 해방기의 정치적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을 통해 부여된다. 「윤희설」, 「형제」, 「해방」 등은 기독교 모티프의 인유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을 인간의 것으로 전환시키면서 대안적 인간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16)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1987, 34면 참조.

3. 성 바울 인유를 통한 유로지비의 탄생: 「윤희설」·「형제」

좌우익의 대립을 가족이라는 범주 내에서 형상화한 해방기 첫 소설로 「윤희설」(1946)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절필했던 김동리의 해방 후 첫 소설로서 좌우익의 정치적 대립을 가족 공동체라는 범주 내에서 다룬 것이다. 남매인 한중우와 한성란은 각각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 묘한 대립 관계를 이어나간다. 한중우는 애인 혜련이 육체적 교섭을 원하고 또한 자신도 동물적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끝까지 욕망을 통제하고자 한다. 중우의 욕망 자체 목적은 인간성의 자유와 정신적 존엄이다.

김동리는 중우의 심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죄, 타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성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⁷⁾ 자유라는 단어는 신약성서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¹⁸⁾는 것이다. 김동리의 해방기 정치 소설에서 굳이 성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김동리의 제3기 휴머니즘이 결국 신 같은 인간의 자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리와 기독교 사이의 깊은 관련성에 대해서는 「무녀도」, 「사반의 십자가」, 「마리

17) 이는 「윤희설」을 기독교 옹호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도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김동리의 목표를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해방 후 첫 발표작 「윤희설」(1946)과 「무녀도」 첫 번째 개작(1947)은 시기적으로 무척 가깝고, 개작 「무녀도」(1947)는 모화의 아들 욕이를 살인자로 설정한 최초 발표본(1936)과 달리 욕이를 기독교인으로 등장시켰으며, 작품 내 기독교의 영향력을 한껏 높여 남이의 말문을 트이게 한 것이 성경책과 욕이의 기도 덕택이었음을 암시하는 부분도 제시된다. 1947년이라는 시점에서 기독교적 색채를 주요 작품에 깊이 반영했다는 것은 1946년 「윤희설」 발표 당시에도 기독교라는 모티프가 작품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꼭 「윤희설」이 아니더라도 「무녀도」 원작에서 「올화」까지의 창작 기간 42년과 『사반의 십자가』의 창작 등은 김동리 소설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의 위치를 보여준다.

18) 「갈라디아서」 5:13

아의 회태, 「목공 요셉, 「부활, 「천사」 등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것은 김동리의 기독교적 친연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추구하는 인간관이 기독교를 그 상대 향으로 하여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김동리는 수필에서 “영어에는 신(sin)이란 말이 또렷하게 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고유한 말에 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민족성이 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¹⁹⁾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정작 그의 많은 작품들에는 영어의 ‘sin’(죄)을 상기시키는 단어들 사용되고 있고 「윤희설」에서도 김동리는 종우가 해련과 육체적으로 관계 맺은 것에 대해 ‘타락’, ‘죄’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해방기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다루며 민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적 모티프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윤희설」에서 “인간성의 자유, 정신적 존엄!”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유물 사관”이다. 유물 사관은 김동리가 극구 부인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사람이란 과연 빵으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라는 종우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작품의 부분적 맥락으로 보면 유물 사관을 비판하는 언사로 보이지만, 이면적 의미를 추가로 상징할 수 있다. 광야에서 이뤄진 사탄의 예수 시험 장면에서 “사람이 떡(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의 답변은 해련과의 육체적 관계 욕망과 싸우는 종우의 철학에 비추어 보면 동물적 욕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의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은 인간의 구원이 예수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김동리의 제3기 휴머니즘 설계가 완전히 기독교 복음 원리와 합치되

19) 김동리, 「죄와 악, 그리고 백로(白鷺)」,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29 수필:밥과 사랑과 그리고 영원』, 계간문예, 2013, 81면.

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 준 그 가장 귀중한 유산의 하나가 이 자유 정신이라는 거유. 즉 인간성의 자유, 개성의 자유, 이것이 현대인의 신이요 영혼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유. 이십 세기의 인류에게 만약 개성의 말살과 기계적 획일을 강요한다면 거기에는 다만 타락과 암흑……(중략) 그러한 일시적 말초신경의 향락이나 소견으로는 인간의 제일 귀한 것은 구원되지 않을 것이며 빛나는 정신적 창조란 있을 수 없는 계구(……)²⁰⁾

김동리가 종우를 통해 강조한 자유는 획일화에 반기를 드는 개성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으로 종노릇할 자유’를 강조하는 복음적 메시지는 김동리 소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종우는 동물적 욕망이라는 속박을 부정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만이 확실하다. 또한 일시적 말초신경의 향락도 추구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자유는 김동리에게서 ‘현대인의 신이요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빛나는 정신적 창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김동리가 추구하는 제3기 휴머니즘의 주된 가치가 된다.

그러나 종우는 ‘빛나는 정신적 창조’로 계속 가지 못하고 동물적 욕망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나는 대관절 짐승일까 사람일까”라며 탄식한다. 이러한 가운데 헤련은 종우의 말을 듣고 “전 약한 인간…… 이대로 낙오해 가는…….”이라고 고백한다. 여기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체로부터의 자유가 기록된 이 신약성서의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점이다.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²¹⁾라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 칭하였다. 바울과 종우의 탄식은 같은 종류이며

20) 김동리, 「윤희설」,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14:만자동경』, 계간문예, 2013, 39면.

21) 「로마서」 7:24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헤련의 고백 또한 김동리의 제3기 휴머니즘이 인간의 한계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종우에게 있어서 짐승같은 육체적 욕망을 극복한 경우에 얻어지는 결실이란 헤련과의 결혼이다. 김동리는 곤고한 인간의 한계 앞에서 “헤련의 목을 안고 한없이 울고 싶은 충동”을 견뎌내고 버티다가 쓰러져 버리는 종우를 묘사하였다. 종우는 좌우익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우익을 선택했지만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는 욕망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종우에게 진정한 자유란 좌익 반대편에 있는 인간 개성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욕망 분출이라는 방종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동을 억누르다 쓰러지는 종우는 그가 나아갈 다음 단계의 처절한 몸부림과 인간적 자존 실현이라는 열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동리는 주인공 종우에게 ‘성 바보’적인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있는데 이는 예수 또는 바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이 창조한 인물이 신성을 획득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가)

자기 역시 가끔 이러한 동물적 충동을 받지 않는 바도 아니었으나 인간적 자존이 유지하는 날까지 이것과 겨루어 보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보람이라면 보람이요 괴벽이라면 괴벽이기도 하였다.²²⁾

(나)

그는 간밤에 자기가 저지른 그 부끄러운 사실을 생각하고 눈을 감아 버렸다. 나이 삼십이 넘도록 거의 동정을 지키다시피 해 온 그는 그러한 남녀관계 같은 것을 〈동물적 타협〉이라 하며, 경멸하고 저주해 오던 그였다.²³⁾

22) 김동리, 「윤회설」, 앞의 책, 계간문예, 2013, 29면.

중우의 인물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혜련과의 결혼을 방해하는 동생 성란은 ‘중질’을 할 운명임을 강조하지만, 결혼 전의 동정을 지키려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적 문화를 상기시킨다. 인간적 자존은 어느 종교에서나 언급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유와 하나의 지향점을 만들어낸다는 점, 그리고 바울의 ‘곤고한 자’ 모티프가 그대로 중우에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 기독교적 색채가 강해진 개작 「무녀도」(1947)의 집필 시기와 「윤희설」(1946)의 발표 시기가 가깝다는 점은 김동리가 창조한 인물의 이상적 모형이 기독교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특히 “〈동물적 타협〉”이라는 부분은 다음 장에서 분석할 「해방」의 이장우에게도 적용되며 「윤희설」의 중우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는 인물형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된다.

「해방」(1949.9~1950.2)에 앞서 발표된 「형제」(1949.3)에서는 「윤희설」의 ‘곤고한 자’ 모티프에서 더 나아가 용서와 희생의 모티프로서의 유로지비가 나타난다. 「형제」는 「해방」이 『동아일보』에 연재되기 6개월 전에 발표되었는데 여수·순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남로당 계열 군인들에 의해 점령된 경찰서는 ‘적색 반란군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몫서리나는 인간도살장’으로 묘사되며, 그런 경찰서에 인봉의 아들 윤수와 정수가 끌려갔다는 소식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소식을 전한 것은 신봉의 아들 성수이며, 신봉은 인봉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으로 분열된 관계에 놓여 있다. 김동리는 신봉과 관련된 공산당 조직체로 인민위원회, 청년동맹, 농민조합, 어민조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조직체를 대동청년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좌우익의 갈등 양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서 제3세계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봉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통해 김동리가 언급한 제3기 휴머니즘이 어떠한 인간형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23) 위의 책, 32면.

는 것이다.

물론 김동리는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제3세계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분명히 우익을 선택했는데, 좌익과 우익을 각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응시키지는 않았다. 대신 우익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자유라는 가치와 연결시키려 했다. 원래는 지금까지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제3세계에 존재하는 제3기 휴머니즘이 그의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에게 제3의 선택안을 허락하지 않았고 자유를 위해 김동리는 우익을 택하면서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좌우 대립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작품에서 그 첫 유형이 드러난 것이 바로 「형제」이다. 이 작품은 가족 내에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적대관계로 치닫는 서사를 보여준다. 「형제」는 1948년 10월 21일 오후의 여수 거리를 배경으로 시작된다. 남로당 세력이 여수를 점령했을 때 인봉의 아들 윤수와 정수는 경찰서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고, 이후 국군이 여수를 수복한 뒤에는 반대로 우익 세력에 의해 좌익 인사들에 대한 학살이 벌어진다. 우익들은 “빨갱이는 씨도 남기지 말고 죽여야 당계”²⁴⁾라며 집집마다 좌익들을 이 잡듯이 찾아내어 죽인다. 좌익에게 두 아들을 잃은 인봉은 가장 살기등등하게 성난 군중들을 이끌고 돌아다닌다. 그러나 인봉은 신봉의 집에서 신봉의 아들 성수를 발견하고 돌연 태도가 바뀐다.

열 한 살 난 성수. 인봉이는 그것이 성수가 아닐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해 보았다. 「성수 안이여」 인봉이는 이렇게 속으로 타일르며 그 앞을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아니 지나치려 하였다. 그것은 모다 한순간, 아니 한 찰나의 일이었다. 그는 그 앞을 지나치려다 암만해도 그것이 성수임을 속일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저쪽 모퉁이에서 사람 소리가 났

24) 김동리, 「형제」, 『백민』, 1949.3, 79면.

다. 「죽여라—죽여라—」 정정하고도 우렁찬 박생원의 목소리였다. 「씨도 없애라, 씨도」 날렵하고도 표독한 「대청」 동지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뒤안으로 휩쓸어 들고 있었다. 인봉이는 성수에게로 뛰어 들었다. 그의 손에 들렸던 장작 가비는, 그러나 성수의 할머니 위로 나리지 않고 짚 동우리 위에 떨어졌다. 그는 그 억센 팔로 성수를 옆에 낀채 짚 동우리를 밟고 뒷담을 뛰어 넘었다. (……) 지금 성수를 업고 다라나는 자기는 분명히 신봉이요, 자기 뒤를 쫓아 따라오는 박생원과 대청 동지들이 흡사 자기 자신인 것 같았다. 그러므로 지금 성수를 업고 다라나는 신봉이 자기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붓잡히면 마땅히 죽어야할것만 같았다.²⁵⁾

이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핵심 장면으로 좌우익의 갈등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공간에 있는 인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인봉이 〈대동청년단〉이라는 우익 단체에 가입했을 때부터 동생 신봉과의 사이는 극단적으로 틀어졌는데, 그러한 사이에서조차도 인봉은 신봉의 자녀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형제간에 원수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보아 이는 좌익 측 신봉과 우익 측 인봉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현실 반영의 분명한 결과로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김동리는 인봉과 신봉을 형제 사이로 설정하면서 최대한 인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좌우익의 이념 갈등은 남남의 관계에서보다 가족 내에서 불거졌을 때 더욱더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게 되지만, 반대급부로 가족이라는 끈은 신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김동리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 감정과 인간이 만들어낸 고도의 신념 체계를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에서 맞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 내적 대립은 이성과 감정의 대립처럼 비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좌우익의 이념을 이성이 아니라, 마치 종교적 신념과 같이 이해하여 극도의 흥분 상태로 양민을 학살하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 상태로

25) 김동리, 「형제」, 『백민』, 1949.3, 80-81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형제」에 나타난 좌익에 대한 우익의 복수극은 당한 대로 갚아준다는 철저한 계산적 복수, 즉 이성적인 판단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인봉이 신봉과 변별되는 점은 그가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 측인 신봉의 아들 성수를 여전히 지켜주었다는 데 있다. 이는 인간의 일상적인 계산법을 넘어서는 초월적 행위의 일종이다.

인봉이 성수를 업고 도망가는 공간은 신봉이 우익 세력을 피해 도망치는 세계와 인봉이 좌익 세력을 잡으려고 뒤쫓는 세계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이 찰나의 제3세계가 되고 좌우익 갈등의 고리와 만날 수 없는 지점을 달리게 되는 것이다. 「해방」이 현실 추수에 불과한 통속소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은 인봉을 단순히 우익을 대표하는 인물에 제한시키고, 좌우익의 대체 논리만을 소설 속에서 찾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동리는 극한의 갈등을 보여주는 현실 속에서 가장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면서도 그 당시의 이성적 판단과는 무관한 예상 밖의 전개를 보여줌으로써 인봉이라는 인물에게 초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 초월성은 성 바보로서 행할 수 있는 기이한 선택에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 당하는 자'로의 망설임 없는 전환을 보여준다. 기독교에서 이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중의 유대인, 바리새인 중의 진정한 바리새인이라 일컫는 예수교 박해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뒤 예수 옹호자로서 박해를 당하는 편에 섰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용은 기독교적 모티프를 원용하여 다수의 작품을 창작한 김동리에게 있어서 그리 특별하지 않다. 즉, 김동리는 「형제」의 인봉을 통해 좌우익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봉을 이해하지 않으면 「해방」의 이장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익이라는 정치 현실을 딛고 서 있으면서도 좌우익의 진흙탕 싸움 세계와 엇갈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발견할 수 있는 「윤희설」과 「형제」, 그리고 「해방」의 연관 관계는 다음과 같다. 1946년에 발표된 「윤희설」에서는 죄, 타락, 정신적 존엄, 자유 등의 개념이 간간히 언급되었고, 가족 내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 양상이 나타나며, 기독교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사도 바울의 ‘곤고한 자’ 모티프를 탐색 가능하다. 1947년 「무녀도」 개작을 거치면서 기독교적 요소의 삽입 및 초월적 인물 탐색의 강화가 이루어져 1949년 3월 「형제」에 이르러서는 용서와 희생의 유로지비가 탐색 가능해진다. 「윤희설」의 경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용서와 희생의 모티프, 「윤희설」보다 더욱 극렬한 가족 내 좌우익 대립 양상은 사도 바울의 ‘곤고한 자’ 모티프를 ‘다메섹 회심’ 모티프로 심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희설」과 「형제」는 단순히 정치적 추수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 삶의 구경을 탐구하는 과정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진다. 「해방」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족 내 좌우익 갈등을 넘어 제3세계 절충안을 제시하고, 사도 바울 모티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 모티프 탐색에 이른다. 점에서 앞서 발표된 「윤희설」 및 「형제」와 깊이 관련된다. 이는 구경적 생의 형식이 김동리 소설 전체를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로서 전 창작 기간 동안 단절 없이 지속되었음을 밝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4. 십자가 인유를 통한 현실적 인신(人神)의 창출: 「해방」

김동리의 많은 작품들에서 신성은 보통 신과 접촉하는 인간 속성으로서의 초월성을 의미했다. 그러한 초월성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평가받기 쉬웠고 당대의 현안을 해결할 만한 새로운 현실적 대안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김동리의 제3기 휴머니즘이 현실에서 작동 가능하려면 전근대적 현실은 뒤로 물러나고, 적나라한 현실 무대가 소설 세계로 소환되어야 했다. 정치적 현실이 강하게 드러나는 소설에서는 종교 관련 소설의

신성과는 다른, 변별된 형태의 초월성을 상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김동리는 「윤회설」과 「형제」를 통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기질을 보여주는 중우와 인봉을 창조해냈다. 그러나 「해방」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과 관련된 곤고한 자 및 다메섹 회심 모티프를 뛰어 넘어 예수의 십자가 희생 모티프를 원용하며 그 초월적 이미지를 인간 이장우에게 덧씌우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장우는 현실에 기반한 인간 자체적인 초월성을 보여주는 인신 유형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전근대적인 신앙의 차원을 보여주는 무녀 인물들의 초월성과 결이 다르다.

종교는 이미 발견되고 체현된 신에 대하여 복종하고 신앙하고 귀의하지만 문학에 있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 속에 혹은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영원히 새로운 신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신 속에 혹은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새로운 신의 모습을 찾고 구한다는 사실은 문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각자〉의 〈자기 자신〉들은 모두 인간들이기 때문이다.²⁶⁾

상기 제시한 김동리의 언급은 자신의 문학 정신에 대한 것으로 모든 작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들을 통해 새로운 신의 모습을 찾”으려는 그의 문학적 지향점을 근대 이성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 적용할 경우, 그 작품의 인물이 지니게 되는 초월성은 「무녀도」의 모화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형제」의 주인공 인봉은 「해방」 이전의 첫 사례이다. 우익 세력의 선봉격인 인봉이 자신의 원수가 된 동생 신봉의 아들 성수를 업고 우익 세력을 피해 도주한다는 설정으로 볼 때, 인봉은 우익 측 인물의 현실 세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초월적 인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 김동리,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私考) - 나의 문학 정신의 지향에 대하여」,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32:평론』, 계간문예, 2013, 89면.

「해방」에서 이장우는 대한청년회의 회장으로 추대될 만큼 덕이 있고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된다. 우성근 피살 사건으로 대한청년회 일원들이 동요하며 복수를 다짐할 때 이장우만큼은 “원통한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목전에 닥친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²⁷⁾라며 우성근의 장례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을 제안한다. 도의를 중시하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면모는 우익 청년 단체의 수장으로서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장우의 성격 묘사 부분을 좌익 측 등장인물들의 부도덕성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해방」은 정치적 현실 추수의 결과로 평가되기 쉽다. 김동리는 이장우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장우는 우성근의 미망인 심경애로부터 우성근의 편지를 전달받고 친 일파 심재영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의 딸 심양애가 이장우의 귀갓길을 배웅하는 길에 뜻하지 않게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야비한 정욕이 왈각 치밀었다. 거기서 그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리라 — 그만치 캄캄한 어둠이 그에게 갑자기 정욕을 충격시켰다. 숨이 차도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서 더 걸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더 걷는다면, 그 캄캄한 느티나무 밑을 지나 자기의 방 앞까지 간다면,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양애를 자기의 방속에 끌어들이고야 말 것만 같았다. 술이 취한 중에서도 그는 그것이 무서웠고, 또 가슴이 너무 울렁거려 걸음을 더 걸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먹탕물같이 새카만 어둠 속에서 어둠 밖으로 발을 떼어놓기가 싫기도 하였다. 그는 우산을 잡지 않은 다른(왼쪽) 손을 양애의 바른편 어깨 위에 얹었다. (…) 잠자던 이성(理性)이 눈뜨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의 추하도록 거치른 숨소리를 깨달았다. 그것이 모두 한 일 분간이었다. “좀 들어갈까?” 의외로 침착한 목소리였다. “저 가겠어요.” 양애의, 어딘지 목이 메이도록 성이 난 듯한 목소리였다.

27) 김동리, 「해방」,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6:해방』, 계간문예, 2013, 16면.

다.²⁸⁾

심양애에 대한 이장우의 성적 욕망은 우익 측의 대표로서 갖는 희생에 의 의지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이장우의 이중인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욕망에 대한 묘사가 당대 김동리 장편소설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는 하지만 대중성 획득에만 신경을 쓴 결과로 치부하는 평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김동리가 단지 우익 편향적 이념을 드러내고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려 했다면 이장우의 성적 욕망 묘사는 치명적인 모순점이 된다는 점에서 배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김동리는 이장우의 인간적인 욕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작품의 후반부에 묘사된 이장우의 영웅적인 면모와 모순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리는 어떠한 의도로 이장우의 모순적 양면을 묘사하고자 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의 지향성을 보이기 전 이장우의 본 성격은 그의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하미경과의 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경이가 그 언젠가 말하던 사내애와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우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피가 확 치밀어 오르는 듯함을 느꼈다. 자기 자신도 모를 무서운 노기(怒氣)가, 순간, 그의 전 의욕을 사로잡아버렸다. 그는 자제력도 비판력도 잠깐 잃어버린 채 그들이 서 있는 옛 성터 아래로만 쭈뼛쭈뼛 걸어갔다. (...) 장우의 분노는, 순간, 미경에게로 확 옮겨져버렸다. 그는 숨을 쉰근덕거리며 미경의 곁으로 걸어가자, 다짜고짜로 그의 뺨을 철썩 때렸다.²⁹⁾

이장우의 노기는 하미경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나는 사실 내 자신이 이렇게도 배은망덕을 할 줄은 바로 그날 전까지 꿈

28) 김동리, 「해방」, 앞의 책, 66-67면.

29) 위의 책, 86면.

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³⁰⁾이라는 그의 고백은 미경의 뺨을 때리게 한 욕망의 발현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단서이다. 김동리는 이 장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내 손에 덮어씌워졌던, 내 운명”³¹⁾이라고 표현한다. 운명 앞에 쉽게 무너지고 미는 이장우에 대한 묘사는 욕망에 둘러싸인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움과 노여움은 이제 아주 씻을래야 씻을 수도 없는 고질(痼疾)같이 되어버렸다. 자기는 평생 사람을 그리워해야 하고 고독 속에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운명 같은 것이 느껴지기만 하였다. 달이 밝은 밤 혹은 눈이 퍼붓는 저녁때로 그는 혼자 쓸쓸히 거리를 헤매면서도 자기는 이 고독에서 이미 벗어날 수 없는 몸. 그 어떠한 구원의 손도 자기를 이 고독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주지 못하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³²⁾

고독과 절망 앞에 무력한 인간 이장우는 그 자신을 바라봤던 그 관점으로 친일과 심재영을 바라본다. “국방복을 입고 전투모를 쓰고 <천황폐하>를 부르고 다닐 때에도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은 적이 없었다고 여러 번이나 되풀이하여 변명”³³⁾하는 심재영에 대해, 이장우는 징벌과 위로, 처단과 동정 가운데서 갈등하며 “악한 인간아, 가엾은 인간아, 복잡하고 미묘하고 잔인하고 각박하고 추하고 …… 그리고 그지없이 아름답고 귀중하고 눈물겨운 인간아”³⁴⁾라고 부른다. 이장우의 청소년기가 지울 수 없는 운명으로 닦쳐왔듯이 민족주의자였던 심재영에게도 친일이 운명적으로 왔던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

30) 같은 책, 91면.

31) 같은 책, 92면.

32) 같은 책, 93면.

33) 김동리, 「해방」, 앞의 책, 230면.

34) 위의 책, 231면.

은 배은망덕한 손찌검이나 반민족 친일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앞에 놓인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다. 김동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해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김동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두개의 세계〉를 동시에 지양한 〈제3세계〉의 출현”³⁵⁾으로 보면서 「해방」을 현실 추수에 따른 제3세계의 실패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장우의 미국 선택에는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동시에 지양하고자 하는 제3기 휴머니즘적 기조가 흐르고 있다. 그는 하윤철에게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3기 휴머니즘으로 대표되는 김동리의 제3세계관이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배격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선은 미국 쪽을 택해야만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제3세계관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관의 실패라는 평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동리의 제3세계관은 현실에서의 초월적 인간을 통해 구현되는 하나의 궁극적인 인간상에 연결된다. 그 출발점은 이장우가 청소년기에 처했던 무력한 상황, 민족주의자 심재영이 친일파의 거두가 되어간 안타까운 상황, 대한청년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대의를 지향하는 이장우가 욕망을 못 이겨 심양애를 방으로 끌어들이려는 마음을 품는 상황 등 지극히 무력하게 악의 세계로 빠져드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러나 그 결말은 친일 거두 심재영이나 파렴치한 호색가 신철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장우는 그것을 희생을 통해 성취한다.

피살된 우성근을 무척 따르던 김상철이 살인 용의자 중 한 명인 하기철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자 이장우는 모든 책임을 지고 체포되기로 한다.

35) 같은 책, 290면.

이장우가 상철의 곁으로 왔다. “지하실 열쇠는 내게 주어!” 이장우의 명령하는 듯한 엄숙한 목소리였다. “아네요……이건……아니…….” 상철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열쇠 쥐 손은 부들부들 떨며 머뭇머뭇 거렸다. “김군!” 이장우는, 손으로 먼저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내가 우군의 후계자란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여기 책임자야. 그 열쇠는 내 대신 김군이 그동안 맡아두었던 것뿐이야!” (… “내가 회관에서 나갈 때까지 이 문은 열지 말게.”³⁶⁾

이러한 대의 지향성은 앞서 제시되었던 인간의 나약함과 완전히 대비되고 있다. 원래 김동리가 제시한 초월적 인간은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이인다운 품모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것은 신접한 인물의 신성을 인간적인 속성과 병존시키기 어려운 까닭이었다. 김동리가 원작 「무녀도」를 개작할 때 육이와 기독교의 비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육이가 낭이를 임신시키는 서사를 뺀 것도 기독교인과 근친상간이라는 비윤리적 행위가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소설에서는 접신 등의 영적 능력을 드러내는 인간의 비현실적 초월성이 걸림돌이 된다. 신의 영향력에 완전히 지배된 인간의 신성은 과도한 외재적 신성에 의해 인간성이 소거되기 때문에, 김동리는 이장우를 통해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조명하는 동시에 자기희생으로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서사를 마련한다. 여기서 사용된 전략이 바로 기독교의 외재적 신성에 대한 대항성이다.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기독교의 예수에 견줄 수 있는 초월적인 면모를 지니는 인물은 그 상호 모순적 성격을 동력으로 하여 전근대형 신성 추구 인물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격 창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김동리 소설의 기독교 대항성은 「무녀도」, 「사반의 십자가」, 「목공 요셉」 등에서 나타난 바 있다. 「무녀도」의 모화가 기독교 신자인 육이와 대

36) 같은 책, 308-309면.

립각을 세우는 것이나 「사반의 십자가」의 사반이 예수와 구원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대표적인 기독교 대항적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모화와 사반은 인신(人神)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김동리는 예수를 신이 아닌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하여, 「목공 요셉」에서 마리아가 똥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던 예수 및 아버지 요셉에게 꾸지람을 듣고 따귀를 맞아야 했던 예수를 조명하고 있기도 하다. 「해방」(1949-1950) 또한 원작 「무녀도」(1936)³⁷⁾와 1950년대 중후반 집중 발표된 성서 소재 소설들 사이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대항성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다. 다만 정치적 이념이 뚜렷하다는 이유 때문에 「해방」의 기독교 대항성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대항성은 기독교의 모든 요소를 배격하고 비판한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김동리는 여러 종교를 탐색하며 삶의 구경 탐구에 매진한 작가로서 각각의 종교를 창작에 활용하면서 일부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종교적 색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김동리 소설의 특징은 여신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었는데, 여신성은 주로 기존 종교의 변용을 통해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김동리는 종교 각각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중요한 배경으로 처리하면서도 주인공은 그 세계에 완전히 귀의하지 않고 저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삶을 일궈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해방」의 경우 종교 관련 서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교 관련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에 비해 신성을 추출해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다」, 「선택의 자유」, 「육제(肉祭)」, 「피 흐르는 해방」, 「십자가(十字架) 윤리(倫理)」라는 「해방」의 소재목들은 범상치 않은

37) 원작 「무녀도」는 모화가 사는 마을에 들어와 부흥하고 있던 기독교를 모화의 눈을 통해 경계하는 차원에 머물고, 개작 「무녀도」(1947)는 아들 육이가 기독교인으로 설정되면서 종교적 갈등 모티프가 모화의 가족 내부로 깊이 파고들지만 기독교 대항성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소재목은 단연코 ‘십자가의 윤리’일 것이다. 이는 절정으로 치달았던 「해방」의 모든 갈등이 이장우의 희생으로 해소되는 부분이기에 작품 전체의 주제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김동리가 이 핵심적인 대단원의 소재목에 ‘십자가를 놓고 이장우의 희생과 연결시킨 것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장우의 대의 지향성은 소재목 ‘십자가의 윤리’로 인해 기독교 수장인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상기시킨다. 대한청년회의 수장 이장우가 하기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 체포되는 마지막 장면의 대속 모티프는 하윤철과 함께 살던 청소년기 이장우가 하윤철의 형제자매 대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통해 선회되고 있다.

장우에게는 마음 놓이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윤철의 어머니 — 장우도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 가 가끔 신경질을 부리는 일이었다. 그다지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걸핏하면 성화를 부리며 윤철, 미경, 기철, 식모 할 것 없이 온 집안 식구들을 차례대로 못살게 들볶곤 하였다. 그것은 특히 윤철에게 심했다. (...) 물론 그럴 때마다 윤철과 장우는 함께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사죄〉도 했다. 특히 장우의 사죄 — 실상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 면 가장 효과가 났다. 그래서 윤철의 일뿐 아니라 미경이나 기철의 경우이라도 결국은 장우가 올라가 사죄를 해야 대체로는 해결이 되곤 하였다.³⁸⁾

김동리는 이장우에 대해 “실상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을 강조하며 가족 구성원들을 대신해 어머니의 신경질을 누그러뜨리는 대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예수 십자가 희생의 전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죄 없는 자의 사죄’가 가장 효과적인 위로였다는 것은 이장우가 인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和睦祭物)로서의 예수

38) 김동리, 「해방」, 앞의 책, 81면.

와 견줄 수 있는 큰 일을 감당할 것임을 예견하는 복선이다. 하윤철의 어머니에 대한 이장우의 감정은 “한없이 그림고 보고 싶으면서도 어쩐지 자꾸 노여운 생각이 깊어져갔다”³⁹⁾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불행한 자기 운명 속에서 느끼는 이중적 감정이다. 그것은 미경의 뺨을 때린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이장우는 이를 ‘운명’이라고 규정한다. 이장우에게 이 사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고독과 절망의 구렁텅이”⁴⁰⁾이다. 김동리는 「해방」의 이장우를 통해 불행한 운명과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그 운명의 주인공을 대한청년회 수장으로 세우고 희생으로 몰고 간다.

이장우에게 예수의 이미지를 덧씌운다는 것은 김동리의 기독교 대항적 태도를 감안할 때 기독교의 수용보다는 변용 의도에 가깝다. 종교 변용은 기본적으로 본래의 종교성을 흐리게 하면서 변용 주체의 세계를 강화한다. 변용의 발단은 세계문학을 섭렵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김동리의 고백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의 고백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구원의 상태를 지향하지만 신을 믿고 섬긴 상급으로서 받는 종교적 구원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한다. 그 거부감의 원천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즉 피조물로 한계 지어진 자가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온다.

기독교에서는 그 금기의 선을 넘는 인간의 상상력이 창세기의 뱀이 제시한 선악과(善惡果)의 효능, 즉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⁴¹⁾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 그 자체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무화과나무 앞으로 몸을 가리게 된다. 선악과의 효능은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성을 고도로 발달시켜왔는데 그 극한이 근대 인간주의였고 김동리는 이를 넘어서기

39) 위의 책, 93면.

40) 같은 책, 93면.

41) 「창세기」 2:5

위해 인신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상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종교에 귀의할 수 없게 된 김동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신의 도움 없이 인간 자체적으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함으로써 초월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는 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간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며, 선악과의 거짓 효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간 자체적인 믿음을 말한다.

구원에 대한 자구책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출발점은 창조주에 의해 움직여졌다고 여겨지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다. 「해방」의 이장우는 하미경과의 사건으로 절대 고독 속에 내던져지고 운명에 대한 노여움을 느낀다. 기실 이 감정은 기독교의 창조주를 향해 발화되고 있는 것이다. 십 년 만에 재회한 하미경 앞에서 이장우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이 내 성격이요 내 운명이었다면 대체 누구에게 사죄를 한단 말입니까? 어머니와 미경 씨와 윤철 군에게 사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사죄를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이 사죄를 하는 겁니까, 내 운명이 하는 겁니까? (...) 내 자신은 내 운명에 대하여 지극히 불만입니다. (...) 일체의 희망과 미련을 다 버리더라도 다만 생명 하나만은 기어이 이어가고 싶던 그 악착한 발버둥과 몸부림이 없었던들 나는 해방과 함께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⁴²⁾

여기서 이장우는 운명에 대해 일종의 인격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불행한 운명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비하게 하였고 자신을 죽음 가까이로 내몰았으나 악착같은 몸부림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 해방 내용은 소재목 ‘다시 살아나다’에 나와 있으며 이는 예수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것과 거리를 둔다. “악착한 발버둥

42) 김동리, 「해방」, 앞의 책, 106면.

과 몸부림”을 통해 얻은 이장우의 생명은 창조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뇌의 과정을 겪었던 예수의 몸부림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구원의 손도 자기를 이 고독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주지 못하리라고 생각”⁴³⁾했던 이장우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된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그 능력 면에서 창조주의 권능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듯이 보인다. 이장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 속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된다는 점에서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에 가까운 존재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인간형은 「등신불」(1961)의 만적에게서 발견되지만, 해방기의 김동리는 「해방」에서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인간형을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스스로의 몸부림으로 불행한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의 인물이 성적 욕망과 주체할 수 없는 노기 등 지극히 인간적인 나약함과 무력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해진다.

이장우는 스스로에 대한 구원 능력에 비해 인간적인 욕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상충되는 두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예수의 내면에서 수없이 벌어진 두 마음의 갈등을 상기시킬 수 있는데 이장우와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다. 예수의 갈등은 성서에 기록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이다”⁴⁴⁾라는 예수의 말에 나타나 있듯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여 만인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과 육체 입은 인간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이장우는 창조주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거슬러 자유의지를 관철시켜 자신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친다.

이장우에게 있어서 운명은 하윤철의 집안과 얽혀있고 하미경의 뺨을 때리면서 그 길이 서로 갈리게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운명의 갈림

43) 위의 책, 93면.

44) 「누가복음」 22:42

길은 좌우익이라는 정치적 이념으로 나뉘어졌고, 이장우의 사랑도 그에 맞춰 나가는 것이 운명의 흐름이다. 우익을 선택한 이장우는 우성근의 편지 때문에 친일파 심재영과 엮이고 자연스럽게 그의 딸 심양애와 만나게 된다. 당시 친일파는 미군정의 신탁통치에 기용되어 우익의 편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장우의 길은 운명적차원에서 친일파를 수용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장우는 심양애가 보는 앞에서 하미경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정치적 입장에서 있어서는 하미경의 남동생 하기철을 죽게 한 김상철의 과오를 떠안으면서, 좌익 측에 선 하윤철의 동생 하미경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장우의 이러한 모순적 선택은 하미경에 대한 운명의 흐름을 거스르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장우는 대한청년회 수장으로서 그의 운명은 곧 우익의 운명을 표상하며, 우익은 친일파를 수용하도록 운명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장우가 하미경을 선택했다는 것은 곧 심양애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재영과 같은 친일파를 품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가 된다. 하미경에게 입을 맞춘 후에 이어지는 이장우의 행위는 「해방」의 대미를 장식한다. 하기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내가 우군의 후계자란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여기 책임자야”(『전집』 6:309)라고 말하는 이장우는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운명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모습에서 바뀌어 있다. 김동리는 이장우의 이러한 면모를 “관사가 선고나 내리듯 엄숙한 음성으로”(『전집』 6:309)라고 묘사하고 있다.

「해방」의 마지막 장면에서 김상철을 대신해 체포되기를 자처하는 이장우는 소재목 ‘십자가의 윤리’와 관련하여 예수의 이미지를 덧입게 된다. 우성근 피살 사건 이후 대한청년회는 윤동섭·김상철 일파와 장극준 일파는 살해범 수사를 대한청년회 주도로 할 것인지 경찰에 협조만 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한다. 윤동섭 일파는 김상철이 하기철을 연행하여 회관 지하실에서 심문했는데 하기철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 사실을 안 장극

준 일과가 배후에서 해방주보사의 오금레 여사를 움직여 경찰에 고발하게 한다. 수도청과 C.I.C가 회관에 들이닥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상철은 장극준에 대해 “겉으로는 동지라는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멀쩡한 원수”⁴⁵⁾라고 말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극준의 밀고로 대한청년회 수장인 이장우가 체포될 것을 암시한다. 이는 예수가 열 두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장우가 체포될 경우 그 죄목은 하기철 살인이 되는데 그 과실은 원래 김상철에게 있다. 그런데 이장우는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고 김상철 대신 그 죄를 뒤집어쓴다는 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유사한 맥락에 놓인다.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를 뒤집어쓰기를 자처하여 희생 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의 ‘대속’ 모티프가 이장우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암시는 이미 「해방」의 전반부에 제시된 바 있다. 이장우가 하운철의 집에 기거하던 때에 하운철, 하미경, 하기철을 대신해 그들의 어머니께 사죄하면 화가 풀렸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장우의 속성은 마지막 장면의 희생과도 잘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장우를 통해 김동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은 예수와 전혀 다른 것이다. 예수의 대속 모티프를 「해방」에 완전히 수용하고자 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김동리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소제목을 쓰는 이유는 운명으로 표상되는 유일신의 불가항력적 영향력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그래야 김동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인신(人神)의 맥락이 설명된다. 예수의 부활이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부활 신앙과는 무관하게 신에 대한 의지의 맥락이 완전히 탈각되어 있고, 오로지 인간 자신의 초월성으로 현안을 뚫고 나가는 불굴의 자유의지가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45) 김동리, 「해방」, 앞의 책, 306면.

준다.

‘선택의 자유’라는 소재목은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신철수의 여성 편력을 두고 이르는 말이며, 박선주의 자유로운 연애관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성을 신의 규례들과 맞세우기 위한 목적이 은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탕성은 신철수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희생의 아이콘이 되는 이장우에게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보편적인 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김동리의 의식을 보여준다. 이는 초월성과 욕망을 동시에 지녀 현실에서도 충분히 상정 가능한 대안적 인간의 한 특성⁴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육제(肉祭)’는 ‘사순절에 앞서서 3일 또는 한 주일 동안 즐기는 명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기리는 본래의 기독교적 의미와 다소 거리가 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는 의식이 묻어나기도 한다. 김동리가 이러한 ‘육제’라는 단어를 소재목으로 채택한 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이장우의 희생을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견주되 그것이 순수하게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님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철수가 남동생에 대한 누이의 희생이라는 가치를 볼모로 하미경의 육체를 탐하나 하미경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절하도록 이야기를 전개시킴으로써, 이후 이장우가 심양에 대신 하미경을 선택하고 김상철 대신 희생을 감행하는 장면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미경과 이장우는 공통적으로 희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로서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동리는 운명을 거

46) 보통 종교적 관점에서는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초월하지 못한 것이며 수행을 통해 극복할 대상으로 보지만, 김동리에게 욕망이나 자유의지는 신의 규례로 제한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욕망을 배제한 초월성은 성인이나 소수 영웅의 출현을 가능케 하지만, 욕망을 배제한 상태의 인간이 갖는 숭고한 삶의 방식은 유한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초월 가능한 다수의 인신 출현을 가능케 한다.

슬러 인간 자체적인 의지에 따라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담긴 숭고한 이미지를 이장우라는 인물에 새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직 기독교 신성을 표현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영역이었으나, 「해방」의 이장우는 당당하게도 신적 영역에서 논의되는 희생 모티프를 인간적으로 구현하면서 인신의 속성을 띠게 된다. 이는 김동리의 기독교 대항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5. 마무리

좌우익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 중에서도 「해방」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작가의 현실 추수적 작품으로 지적되면서 문학적으로는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읽어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소설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게 「해방」을 바라보는 학계의 일반적인 시선이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계속 이어져 온 제3기 휴머니즘이라는 김동리의 문학적 계보를 「해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김동리의 해방기 소설 「윤희설」, 「형제」는 「해방」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좌우익의 갈등을 소재로 한다는 것 외에도 기독교 인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해방」과 무척 닮아있다. 기독교 인유는 주인공의 성화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며, 그 최종적 목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수용한 인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주요 인물들과 견줄 수 있는 해방기 현실관 ‘모화’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김동리의 제3기 휴머니즘이 1930년대 초기 소설부터 이미 맹아의 형태로 잠재되어 있었기에 가능하다.

김동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천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

고 그 결실은 「무녀도」의 모화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당산제와 마을의 안녕을 연결시키고 한쇠 할머니의 신앙적 세계관을 언급한 「산화」(1936)에서부터 미미하게나마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북바위에 돌을 갈면서 소원을 비는 「바위」(1936)의 술이 어머니, 모든 자연물들과 영적 소통이 가능한 「무녀도」(1936)의 모화, 자연(산천)과 융화되는 「산제」(1936)의 태평이는 모두 초월을 소망하거나 초월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은 전근대에 대한 향수 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형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신적(與神的) 인간’이라는 독특한 유형의 인간을 언급한 김동리의 문학사상과 깊이 관련된다.

「무녀도」 직후에 발표된 「술」(1936)이라는 작품에서 김동리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악령』의 키릴로프와 주인공을 연결시키면서 인신론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김동리 초기 소설이 지닌 초월성의 향방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신에게 예측되지 않은 신적 인간이다. 김동리는 「무녀도」의 모화를 피테가 창조한 파우스트에 견주며 대표적인 여신적 인간으로 규정한다. 악마와 계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파우스트』의 서사는 뱀(사탄)과 인간을 둘러싼 선악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을 상기시키지만, 「무녀도」의 모화는 동양의 파우스트로서 자연과 하나되는 인간을 드러낸다. 외재적 신성인 하늘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발현되는 신적 속성이 신들린 무당 모화를 자연과 동등한 인간, 즉 신을 내포한 인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무녀도」의 인간관에 대한 상징적 호명은 「술」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인신(人神)이다.

그러나 인신(여신적 인간)은 전근대적 분위기의 초기 소설에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합리성이 지배하고 신이 배제된 근대 세계에서 신비적 초월성은 한낱 미신적 요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동리는 해방기에 접어들어 현실에서 상징 가능한 제

3기 휴머니즘의 성격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윤회설」에서는 중우가 지닌 성 바보적인 측면이 순결과 자유에 대한 갈망에서 드러났고, 「형제」에서는 죄익을 박해하는 자에서 죄익 인사의 자녀를 용인하고 도리어 우익에 꺾박당하는 자로 전환되는 비합리적 장면을 통해 인봉의 성 바보적 측면이 제시되었다. 「해방」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견줄 수 있는 이장우의 희생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신의 성격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인신, 즉 신성을 내포한 인간은 제3기 휴머니즘의 핵심으로서, 신과 인간의 관계 천착을 위한 발판이자 김동리의 지속적인 창작 모토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의 초기 소설들이 인신론에 근접한 제3기 휴머니즘의 맹아를 품고 있다면, 가감 없이 우익 측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해방」을 포함한 김동리의 해방기 정치 소재 소설은 초기 소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열릴 수 있다. 정치적 현실 추수에 따른 창작 수준의 하락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벗겨내는 데는 역부족이겠지만, 새로운 인간형 창조를 향한 작가의 현실적 노력 자체는 중단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특히 김동리가 그토록 부인해 왔던 기독교에 대한 숨겨진 인유와 변용의 흔적들은 전근대성이 짙게 나타났던 초기 소설 주인공의 성격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김동리는 이 작업을 통해 신성을 극도로 강조한 전근대적 분위기의 초기 소설과 다른 현실판 제3기 휴머니즘의 성격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동리, 「형제」, 『백민』, 1949.3.
 _____, 「해방」,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6;해방』, 계간문예, 2013.
 _____, 「윤희설」,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14;만자동경』, 계간문예, 2013.

2. 참고 자료

- 김동리, 「백씨 범부 선생 이야기」,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26; 수필로 엮은 자서전』, 계간문예, 2013.
 _____, 「신과 인간과 민족」,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29;수필-밥과 사랑과 그리고 영원』, 계간문예, 2013.
 _____, 「본격문학과 제3세계관의 전망 - 특히 김병규(金秉濬) 씨의 항의에 관하여」,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32;평론』, 계간문예, 2013.
 _____,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私考) - 나의 문학 정신의 지향에 대하여」, 『탄생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32;평론』, 계간문예, 2013.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2013.
 김채희, 「구로사와 아키라의 휴머니즘에 관한 재고찰: 전제된 질문(données d'une question)과 바보성자(Юродивый) 개념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94, 한국영화학회, 2022, 207-236면.
 강경화, 「해방기 김동리 문학에 나타난 정치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1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243-265면.
 대한성서공회 편, 『개역개정 굿모닝 성경』, 아가페출판사, 2008.
 루돌프 옌트, 『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1987.
 문석우,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聖바보’에 대한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6, 한국러시아문학회, 2004, 87-111면.
 박영순, 「김동리 〈解放〉 연구」,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167-84면.
 박은태, 「김동리의 『해방』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277-96면.
 박종홍, 「김동리 소설 연구 : 해방기 작품을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1995, 283-305면.
 박현호, 「김동리의 《해방》에 나타난 이념과 통속성의 관계」, 『현대소설연구』 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251-70면.

- 이 찬, 「해방기 김동리 문학 연구 : 담론의 지향성과 정치성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290-322면.
- 이혜진, 「해방정국 청년세대의 연대와 적대의 아포리아 —김동리의 『해방』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2, 우리문학회, 2019, 81-106면.
- 전계성, 「興神的 인간의 탈근대성과 그 기원 - 김동리 초기소설(1935~36)을 중심으로」, 『영남학』 84, 영남문화연구원, 2023, 41-76면.
- 홍주영, 「김동리 문학 연구 : 순수문학의 정치성과 모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cendence of Characters in
Kim Dong-li's Political Novels
-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Aspect of the 'Fool Saint'
Motif

Jeon, Gye-seong

Kim Dong-li's "Liberation"(1949.9~1950.2) is a work that pursued the political reality and openly showed right-wing bias. Considering the traces of Christian allusion revealed in "Reincarnation Theory"(1946.6) and "Brothers"(1949.3) and the image of the sacrifice of the cross over Lee Jang-woo in "Liberation, Kim Dong-li's 3rd humanism theory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liberation period If it is a continuous movement up to, "Liberation" can have a meaning as a process to build a divine human, a model of a new human view. The human god was suggested indirectly by citing Dostoyevsky's *Evil Spirit* in "Sul"(1936.8), but in reality it corresponds to the mother of "Munyeodo", and Kim Dong-li defined it as a human being with a god. "Forest Fire" and "Rock", which were published at the same time, are also works depicting humans with God. However, the characters in the early novels created by Kim Dong-li reduce the reality of the theory of humanism in the 3rd period due to the pre-modern atmosphere and the sense of distance from reality. In response, Kim Dong-li presented the types of human gods that can be assumed in reality by creating political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n "Reincarnation Theory", Jong-woo's stupid saintly side, which

combines values oriented toward purity and a longing for freedom, was revealed. In "Brothers", Inbong's foolish saint is revealed through an irrational scene in which a persecutor of the leftist turns into a person who embraces the child of a leftist figure and is persecuted by the rightist. In "Liberation", through Lee Jang-woo's sacrifice, comparable to Jesus' sacrifice on the cross, the character of a realistically possible human god reached the advanced stage. This is similar to the strategy that raised the value of divine human beings, that Kim Dong-li wanted to put forward based on the anti-Christianity in "Munyeodo" or "Cross of Shaban".

Key words: Kim Dong-li, liberation period, third period humanism, foolish saint, Christian allusion, a human god

투 고 일 : 2023년 8월 14일

심 사 일 :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 2023년 9월 18일